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유진[‡]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Behavior toward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Lim Youjin, RN, Ph.D[‡]

[‡]*Dept. of Nursing Science, Gwangju Health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level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cor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behavior.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380 nursing students using a self-questionnaire from February 13th to 24th of 2017.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linear regression with SPSS WIN 19.0.

Result: The scores of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elderly were 11.96 points (range 0~25), 4.51 points (range 1~7), 3.48 points (range 1~4), respective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according to volunteer experience.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three variables. Factors influencing the behavior were volunteer experiences and th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hich explained about 17.7% of total variance.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a need to develop the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program to lead to an increase of positive attitudes including volunteer work for the elderly. Accordingly, the program will help strengthen the nursing students' positive behavior toward the elderly.

Key Words : nursing student, elderly, knowledge, attitude, behavior

[‡]교신저자 : 임유진 yjlim@gh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는 2000년에 전체의 7.2 %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6년 13.2 %로 14 %를 기준으로 하는 고령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5.6명이 고령인구(65세 이상) 1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노인인구부양 부담도 높아졌으며, 이러한 부담은 고령화와 함께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6).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자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기관이용률과 건강보험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노화 과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변화를 의미하며,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과 경험과 지혜의 축적, 숙련도의 향상, 활동능력의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박명화 등, 2013).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대가족 제도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효와 경로를 중요시 해 왔으며, 노인을 존경과 감사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핵가족화, 산업화와 더불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날로 증가하면서 점차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노인차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경인, 2013; 신학진, 2010; 이지영, 2009).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노인전문병원 및 의료복지시설이 개설되고 수용인원 및 관련업무 종사자수도 함께 증가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2016a; 2016b; 2017). 급성기 병원은 다르게 노인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들의 상당수는 한 번 입소하면 장기간 머무르게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정과 같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시설과 서비스를 기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에서 질병치료 및 관리와 함께 삶의 질적인 측면의 돌

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윤주영 등, 2012; 정지영과 윤순영, 2012).

요양기관 입소자들은 생소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자신의 신체적 불편감 및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급격한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되며, 자신의 문제를 오로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간호인력에게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간호인력의 의료서비스 질이 이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 중 특히 간호사는 다양한 간호인력의 업무를 지도감독 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 질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하겠다. 정지나(2013)의 연구에서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만족이 입소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직원들의 질적 자격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대상자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간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노인간호교육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속적인 간호교육은 간호사들의 수준 높은 간호행위를 유도하고, 이는 질적인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간호행위는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강미영, 2016; 김연주, 2013; 정지영과 윤순영, 2012). 간호사들은 노인간호교육을 통해 노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여 노인을 보다 더 이해하게 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간호행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에 걸쳐 접하게 되는 환경과 반복교육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가정이나 교육기관의 역할도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지금의 대학생들은 노인과 접할 시간이 과거보다 많지 않아 노인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으며,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유영숙, 2007; 이재모, 2009)도 있다. 특히, 머지않아 임상현장에서 노인대상자들의 간호를 담당하게 될 예비간호사들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는 동시에, 노인을 이해와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조사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지식점수는 대체로 낮거나 약간 높고, 태도는 중립적인 점수를 보였으며, 행동점수는 낮거나 비

교적 높은 정도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결과를 보여(김수옥 등, 2016; 이은자와 강익화, 2006; 최경애, 2006)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간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면서 간호대학들에서 노인간호 관련 이론 및 실습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나, 전공선택이나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되거나 학점의 크기가 다르고, 실습장소나 내용 등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김춘길 등,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정도와 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학생의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과과정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정도와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점수를 파악한다.
-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행동 점수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관한 지식, 태도, 행동의 정도와 세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G광역시 소재 1개 전문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 3, 4학년 전체 학생 중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며,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380명이었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 언제든지 연구철회가 가능함을 명시한 서면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 한 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017년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총 38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383부가 회수되었으며, 결측값이 많거나 매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380부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적절한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다중선형회귀모형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임의 예측변수 9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최소한의 표본수는 166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의 표본수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4학년은 15주 과정의 노인관련 이론 교과목과 2개 학기 임상실습 교과목 수강을 마친 상태였으며, 2학년과 3학년은 일부 교과목 내에서 노인관련 내용을 학습한 경험이 있으며, 임상실습 교과목은 수강하지 않았다.

2. 연구도구

1) 노인에 대한 지식

Palmore(1977)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1998년 수정·보완된 True-False version의 Facts On Aging Quize(FAQ1)를 임영신(2002)이 한국 노인의 실정에 맞추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현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19번과 25번은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노화에 대한 신체·생리적 측면 11문항, 심리적 측면 6문항, 사회적 측면 8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혜진(2011)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54$ 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24$ 이었다.

2) 노인에 대한 태도

한정란(2004)의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0개의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ing)로서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7점 척도로 나뉘어 '매우 긍정적'은 1점, '매우 부정

적'은 7점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4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역코딩하였다. 총점은 20점에서 1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69$ 이었다.

3) 노인에 대한 행동

원영희(2004)에 의해 개발되고 최경애(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에 대한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7개 문항, 4점 척도로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점수를 역코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총점은 17점에서 68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행동을 의미한다. 최경애(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82$ 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및 분석하였다.

- 1)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행동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3) 지식, 태도, 행동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86.8 %는 여학생, 13.2 %는 남학생으로 여학생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연령은 평균 22.93세였다. 2학년이 34.2 %, 3학년이 35.0 %, 4학년이 30.8 % 정도로 학년별 인원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노인과 거주경험이 있는 학생은 51.9 %로 거주경험이 없는 학생과 유사한 비율이었다.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학생은 79.5 %, 봉사경험이 없는 학생은 19.7 %였으며, 임상실습이나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이외의 노인환자 간호경험이 있는 학생이 26.6 %, 그렇지 않는 경우는 72.4 %를 차지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80)

| Variables | Categories | N(%) |
|--|------------|------------|
| Gender | Male | 50(13.2) |
| | Female | 330(86.8) |
| Age(years) | ≤ 20 | 132(34.7) |
| | 21~25 | 197(51.8) |
| | ≥ 26 | 51(13.4) |
| | Mean±SD | 22.93±5.70 |
| University grade | Sophomore | 130(34.2) |
| | Junior | 133(35.0) |
| | Senior | 117(30.8) |
| Living experience together the elderly | Yes | 197(51.9) |
| | No | 180(47.4) |
| | No answer | 3(0.8) |
| Volunteer experience for elderly | Yes | 302(79.5) |
| | No | 75(19.7) |
| | No answer | 3(0.8) |
| Caring experience for the elderly except clinical practicum or volunteer | Yes | 101(26.6) |
| | No | 275(72.4) |
| | No answer | 4(1.1) |

2.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점수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는 11.96점이었으

며, 하부영역별로는 신체·생리적 영역 7.24점, 심리적 영역 2.22점, 사회적 영역은 2.49점이었다. 노인에 대한 태도점수는 4.51점, 노인에 대한 행동점수는 3.48점이었다(표 2).

Table 2.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N=380)

| Variables | Range | Minimum | Maximum | Mean (SD) |
|-------------------------------|-------|---------|---------|-------------|
| Knowledge | 0~25 | 4.00 | 19.00 | 11.96(2.80) |
| Physical · physiological area | 0~11 | 3.00 | 11.00 | 7.24(1.50) |
| Psychological area | 0~6 | 0.00 | 5.00 | 2.22(1.14) |
| Social area | 0~8 | 0.00 | 7.00 | 2.49(1.32) |
| Attitude | 1~7 | 3.00 | 6.05 | 4.51(0.60) |
| Behavior | 1~4 | 2.41 | 3.94 | 3.48(2.88)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6가지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점수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노인에 대한 지식은 학년($F=11.061$, $p<.001$)과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경험($t=2.352$, $p=.019$)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3학년이 2학년과 4학년보다,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지식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성별, 연령, 임상실습이나 자원봉사 이외의 노인환자 간호경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F=4.817$, $p=.009$), 노인과의 거주경험($t=3.043$, $p=.003$), 자원봉사경험($t=3.269$,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5세 이하가 26세 이상보다, 노인과 거주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높은 태도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성별, 학년, 임상실습이나 자원봉사 이외의 노인환자 간호경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에 대한 행동은 6가지 특성 중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경험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103$, $p=.002$),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행동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80)

| Variables | Categories | Knowledge | | | Attitude | | | Behavior | | |
|-----------|------------|--------------|--------|-----|-------------|--------|-----|-------------|--------|-----|
| | | Mean (SD) | t or F | p | Mean (SD) | t or F | p | Mean (SD) | t or F | p |
| Gender | Male | 11.90 (3.28) | -.13 | .90 | 4.58 (0.70) | .84 | .41 | 3.49 (0.29) | .46 | .65 |
| | Female | 11.96 (2.73) | | | 4.50 (0.59) | | | 3.47 (0.29) | | |

Table 3.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Cont.) (N=380)

| Variables | Categories | Knowledge | | | Attitude | | | Behavior | | |
|--|------------|--------------|--------|-------|-------------|--------|-------|-------------|--------|-----|
| | | Mean (SD) | t or F | p | Mean (SD) | t or F | p | Mean (SD) | t or F | p |
| Age(years) | ≤20a | 12.16 (2.75) | | | 4.52 (0.55) | | | 3.47 (0.26) | | |
| | 21~25b | 11.81(2.74) | .63 | .53 | 4.56 (0.64) | 4.82 | .01 | 3.49 (0.30) | 1.04 | .35 |
| | ≥26c | 12.00 (3.16) | | | 4.27 (0.56) | | a,b>c | 3.43 (0.31) | | |
| University grade | Sophomorea | 11.67 (2.69) | | | 4.49 (0.56) | | | 3.47 (0.26) | | |
| | Juniorb | 12.83 (3.01) | 11.06 | <.00 | 4.54 (0.65) | .34 | .72 | 3.47 (0.30) | .21 | .81 |
| | Seniorc | 11.28 (2.41) | | b>a,c | 4.49 (0.59) | | | 3.49 (0.30) | | |
| Living experience together the elderly | Yes | 12.14 (2.81) | 1.33 | .19 | 4.59 (0.63) | 3.04 | .00 | 3.49 (0.29) | 1.49 | .14 |
| | No | 11.76 (2.78) | | | 4.40 (0.56) | | | 3.45 (0.29) | | |
| Volunteer experience for elderly | Yes | 12.12 (2.75) | 2.35 | 0.02 | 4.55 (0.59) | 3.27 | .00 | 3.50 (2.77) | 3.10 | .00 |
| | No | 11.28 (2.88) | | | 4.30 (0.61) | | | 3.38 (0.31) | | |
| Caring experience for the elderly except clinical practicum or volunteer | Yes | 11.98 (2.61) | .18 | .86 | 4.49 (0.67) | -.14 | .89 | 3.48 (0.29) | .43 | .67 |
| | No | 11.92 (2.84) | | | 4.50 (0.57) | | | 3.47 (0.29) | | |

4.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의 관계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표 4

와 같다. 지식과 태도($r=.255, p<.001$), 지식과 행동($r=.131, p<.001$), 태도와 행동($r=.411, p<.001$)간에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 Variables | Attitude r(p) | Behavior r(p) |
|-----------|---------------|---------------|
| Knowledge | .26 (<.00) | .13 (<.00) |
| Attitude | | .41 (<.00) |

5.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행동점수에 차이를 보였던 자원봉사 경험 유무와 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지식과 태도를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원봉사 경험 유무는 명목척도이므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살펴본 공차한계가 .974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는 1.027으로 10을 넘지 않았으며, 상태지수는 4.583~18.302으로 30미만이어서 상호독립적이었다. Durbin-

Watson 값이 1.967으로 잔차의 자기상관성이 없었다. Cook's distance 통계량으로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평균 0.003이고 1.0 이상인 개체는 없었다. 또한 잔차 분석결과 모형의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만족하였으며 위의 결과를 통해 회귀분석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자원봉사 경험 유무를 설명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8.461, p<.001$). 설명력은 17.7% 정도로 확인되었다. 즉,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설명변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경험임을 알 수 있었다(표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behavior toward the elderly

(N=380)

| model | B | β | t | F | R ² | ΔR^2 |
|--------------------------------------|------|---------|---------|----------|----------------|--------------|
| (Constant) | 2.58 | | | | | |
| Attitude toward the elderly | 0.20 | .41 | 8.49*** | 72.15*** | .17 | |
| (Constant) | 2.56 | | | | | |
| Attitude toward the elderly | 0.19 | .39 | 8.09*** | | | |
| Volunteer experience for the elderly | 0.07 | .10 | 2.04* | 38.46*** | .18 | .01 |

*p<.05, ***p<.001

IV. 고 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정도 및 세 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학생의 노인간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는 25점 만점 중 약 11.96점으로 중간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 연구들과 비슷하거나 낮은 결과였으며(김수옥 등, 2016; 박경연, 2012; 이은자와 강익화, 2006; 최경애, 2006). 간호사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보다도 다소 낮은 점수였다(윤숙희, 2009; 염미자, 2007). 영역별 점수를 보면, 신체·생리적 영역은 11점 만점 중 7.24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심리적 영역은 6점 만점 중 2.22점, 사회적 영역은 8점 만점 중 2.49점으로 중간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3가지 영역 중 신체·생리적 영역의 지식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 순으로 나타난 것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 연구결과와 같았다(이은자와 강익화, 2006; 최경애, 2006). 반면,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류희선(200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역, 심리적 영역, 신체·생리적 영역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정화 등(2011)의 연구에서 사회복지계열 전공대학생과 보건계열 전공대학생들의 지식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보건계열 전공대학생의 신체·생리적 영역 점수가 사회복지계열보다 더 높았으며, 심리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대학의 노인간호관련 교과목이나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간호대학의 노인관련 교육이 주로 건강관리 측면의 신체·생리적 지식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과 더불어 타전공 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관련 교과목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노인의 전반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일반적 특성 중 학년과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3학년이 2학년과 4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2학년의 점수가 4학년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4학년은 15주 과정의 노인관련 이론교과목을 3학년 2학기에 수강하였고, 정규 노인간호학 실습은 아니지만 2개 학기에 걸친 임상실습을 마친 상황이었다. 반면 2학년과 3학년은 다른 교과목의 일부에 포함하여 노인관련 지식을 접해 본 적이 있으며, 임상실습 경험은 아직 없었다. 종합해 보면, 노인관련 이론교과목이나 임상실습이 노인에 대한 지식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이 노인간호 강의수강 또는 노인간호 실습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이은자와 강익화, 2006; 최경애, 2006). 그러나 류희선(2004)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전공학생들이 타전공생들에 비해 지식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노인관련 수업을 여러 과목 이수한 학생이나 노인관련 실습이나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이 지식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현재 간호대학에서 이수하고 있는

노인간호학 관련 교과목의 내용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검토하고 다학제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에 대한 태도점수는 7점 만점 중 4.51점이었으며, 총점은 90.06점이었다. 평균 3.5~4.5, 총점 70점~90점을 중립으로 봤을 때 중립보다 약간 높은 점수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결과와 비슷하거나 높은 점수였다(김수옥 등, 2016; 윤숙희, 2009; 이은자와 강익화, 2006; 장혜영, 2013; 최경애, 2006).

태도점수는 일반적 특성 중 연령, 노인과의 거주경험, 자원봉사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25세 이하의 학생이 26세 이상보다 태도점수가 더 높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최경애(2006), 이은자와 강익화(2006), 최요진(2011)의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입재수나 군생활 기간을 포함하여 졸업 전년도 학생의 최고연령기준을 25세로 정하여 연령군을 분류하였다. 26세 이상에서는 대개 간호대학 입학 전 사회경험이나 결혼생활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접해 본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험이 태도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만학도의 경험이나 특성에 대한 추가조사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노인과의 거주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조부모와 거주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거주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더 긍정적인 점수를 보인 이은자와 강익화(200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는데, 단순히 노인과의 거주여부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노인과의 거주에 대한 다양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에 대한 행동점수는 4점 만점 중 3.48점이었으며, 총점은 68점 만점에 59.04점이었다. 평균 2~3점, 총점 34점~51점을 중립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점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보다도 높은 점수였다(김수옥 등, 2016; 김연주, 2013, 염미자, 2007; 최경애, 200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경험 유무는 노인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의 3가지 변수 모두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는데,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군이

경험이 없는 군보다 지식, 태도, 행동점수가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경험에 따른 선행 연구 결과는 다양했는데, 한국과 일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재모(2009)의 연구에서 두 나라 학생 모두 자원봉사 횟수가 많고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식점수도 높았으며,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경연(2012)의 연구에서도 봉사에 대한 만족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여 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밖에 최경애(2006)와 최용득(2008)의 연구에서도 자원봉사 경험은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조사한 정귀애와 장희정(2011)의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을 2주에 1회씩, 총 12회 방문간호를 실시한 결과, 실험군의 노인에 대한 지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점수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은주와 한창완(2009)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회, 4개월간 노인대상자에게 재가복지 서비스 자원봉사를 실시한 결과, 봉사에 참여한 집단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노인에 대한 공경심도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자원봉사를 경험하게 한 문정은(2011)의 연구에서 봉사 후 지식은 약간 높아졌으며, 태도는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행동은 오히려 약간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이은자와 강익화(2006)의 연구에서 봉사경험이 지식과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경험은 학교나 연구자에 의해 계획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자율적인 봉사경험이었다. 수동적인 봉사보다는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할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며 이는 지식과 행동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이 학생들의 자원봉사 전·후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는 많은 편이나, 연구결과가 매우 다양하여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경험과 자원봉사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노인을 이

해하고 긍정적인 태도 및 행동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찾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와 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지식과 태도, 지식과 행동은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태도와 행동은 조금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최경애(2006)와 염미자(200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즉,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일 것이며,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긍정적 행동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변수들 중에서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경험이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행동을 17.7 % 예측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임을 보고한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였다(김수옥 등, 2016; 강숙희, 2006). 결과적으로,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행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인자원봉사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노인을 대하는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학생들이 노인과의 실제적인 접촉을 통해 노인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이것이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전공교과목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분한 연구자수를 확보하였으나 노인관련 이론교과목이 전공기초의 인문사회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고, 노인간호학 실습은 개설되지 않은 일개대학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양한 학습환경의 상황을 고려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별 교과과정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교과과정이수에 따른 노인간호행위의 차이를 조사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신체적·생리적 문제에 치우치지 않고 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공감하여 인간중심간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학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선행연구

결과들을 메타분석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결과들을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노인간호 서비스의 질과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정도와 세 가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은 25점 만점에 11.96점으로 중간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였고, 태도는 7점 만점에 4.51점으로 약간 긍정적이며, 행동은 4점 만점에 3.48점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점수를 보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보면, 노인에 대한 지식은 학년, 노인자원봉사 경험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 노인과의 거주 경험, 노인자원봉사 경험에 따라, 노인에 대한 행동은 노인자원봉사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자원봉사 경험이 노인에 대한 행동을 17.7 % 예측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에게 노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경험을 가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행동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노인간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 때부터의 관련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인간호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강미영(2016).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간호행위와 업무만족도.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숙희(2006). 일부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노인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지숙, 정덕유, 김예영(2009). 여대생의 노인부양의식과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노년학, 29(3), 851-865.

김수옥, 오효순, 왕미숙(2016).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2(2), 163-170.

김연주(2013). 병원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 행동 및 노인 간호실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춘길, 공은희, 김선숙 등(2013). 간호학 학사과정 내 노인간호학 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 노인간호학회지, 15(3), 185- 191.

류희선(2004). 대학생들의 노화에 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정은(2011). 대학생의 노인대상 자원봉사가 노인에 대한 인식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경연(2012).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일개 간호대학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노인간호학회지, 14(3), 191- 199.

박명화, 김아린, 김정선 등(2013). 노인간호학. 제 3판, 서울, 정담미디어.

신경인(2013). 노인차별경험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학진(2010).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아통합감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2), 551-565.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염미자(2007).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원영희(2004). 노인에 대한 행동 척도 개발. 미간행.

유영숙(2007). 노인 존중에 대한 행동과 태도 : 대전 시내

초·중·고·대학생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숙희(2009).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케어실천행위. 간호행정학회지, 15(4), 593-600.

윤주영, Roberts T, Bowers BJ 등(2012). 노인요양시설의 인간 중심 케어(Person-centered care)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32(3), 729-745.

이은자, 강익화(2006). 간호학생의 노인관련 지식 및 태도 조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2), 183-194.

이은주, 한창완(2009). 노인대상 자원봉사활동이 대학생들의 노인 및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9(4), 1233-1245.

이재모(2009). 한일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5, 117-140.

이정화, 박의정, 최정미(2011). 일부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11(2), 233-242.

이지영(2009). 노인차별에 대한 노인의 의미화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4), 1205-1232.

이혜진(2011). 간호사, 의사, 간병인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영신(2002). 한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혜영(2013). 요양병원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간호실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귀애, 장희정(2011). 간호대학생의 노인간호봉사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2), 200-207.

정지나(2013).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이용만족이 건강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지영, 윤순영(2012). 요양병원 간호인력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직접간호수행 정도 및 노인학대 인지도. 노인간호학회지, 14(3), 233-241.

최경애(2006).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요긴(2011).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용득(2008). 간호과와 사회복지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